

안녕하세요. 이번 제31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최이슬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선배님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힘을 얻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제가 합격수기를 쓰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 1. 기본 베이스 및 수험기간

저는 비법대 출신이지만 2024년 2월까지 약 10년간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가사, 형사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왔고, 2019년경에는 사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이혁준 교수님의 민법 1차 기본강의를 70% 정도 수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률용어와 절차 흐름에는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서 수험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총 수험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로 1년 8개월 정도입니다. 다만 동차시험 이후 2024년 2월까지 약 4개월간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부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2. 공부시간 및 생활패턴

1차 준비 당시에는 공부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장시간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순공부시간은 평균 6시간 정도에 그쳤습니다. 2차 준비기간에는 공부량이 훨씬 많았고, 2차 공부에 더 큰 흥미를 느끼면서 공부시간도 늘어 하루 10시간 이상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체계적인 루틴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격으로 수험기간 내내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고, 오후 늦게 공부를 시작해 아침까지 이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생활패턴으로 스스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마지막까지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향의 수험생이라면 공부시간이나 생활패턴 자체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시되, 가능하시다면 시험 한달 전부터는 생활리듬을 시험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

여 1, 2차 시험 모두 최악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 3. 1차시험 결과 및 공부방법

시험명	제30회 법무사시험
응시자명	최이슬
주민등록번호	950225-*****
응시번호	300335

과목명	헌법,상법	민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민사집행,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	부동산등기법,공탁법
점수	52	68	66	58

평균	61
합격선	60
합격여부	합격

#### 가. 객관식문제집 회독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약간의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했고, 객관식 시험에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기출문제를 반복 회독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문제집은 해설이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어느 교재든 무방하다고 생각하나, 저의 경우 아래 교수님의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민법: 박효근 교수님

헌법: 이재영 교수님

상법: 문승진 교수님

가족관계등록법: X

민사집행법: 김정호 교수님

상업등기법: 문승진 교수님

부동산등기법: 오영관 교수님

공탁법: 김정호 교수님

회독방법은 시험 일주일 전을 가시험일로 정해두고, 역산하여 회독 주기를

설정하였는데 7-4-2-1 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과목별 공부량에 따라 회독주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의 경우 양이 방대하여 10-7-4-2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주일동안은 마지막 회독 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1회독 시에는 한 번이라도 나온 지문은 앞에 X 표시를 하여 지문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회독부터는 맞는 지문과 틀린 지문을 구별하고, 외워지지 않는 지문은 체크로 표시하는 것을 반복하며 시험 전 볼 양을 최대한 줄여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험은 시험 하루 전 볼 양을 줄여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험 전 이틀동안 전과목을 1회독 할 수 있게 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 과목별 보완

객관식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였지만, 민법의 경우 양이 방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5년 전 사두었던 민법 기본서를 꺼내어 1회독을 하였는데 기출문제를 본 뒤 기본서를 읽으니 중요한 부분과 출제 포인트가 보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식 문제집을 보면서 헛갈리는 부분은 기본서를 발췌독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위 경험에 비추어 민법의 경우에는 기본강의를 빠르게 수강한 뒤(필기나 기본서 정독까지는 X) → 객관식 문제집 1회독 → 기본서 1회독 → 객관식 문제집 무한 회독 → 모르는 부분 기본서 발췌독 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유튜브에 게시된 이천교 교수님의 무료 강의를 참고하였는데, 개념 정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탁법 역시 별도로 시간을 내어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교수님의 무료 강의를 이동 시간이나 운전 중에 반복해서 들으면서 보충하여 합격권 점수를 얻었습니다.

#### 다. 모의고사 활용

저는 4월부터 봉투모의고사를 구매하여 시간을 정해 풀기 시작하였고 7월과

8월 모의고사는 직접 가서 응시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중요하나 성적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가 55점대로 통상 커트라인인 60점대보다 낮게 나와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본 시험에서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커트라인을 넘겼습니다.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점검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시간 부족으로 모의고사 오답 정리를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가능하다면 오답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1회 1차 시험에서도 모의고사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 라.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강의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 방법은 법률용어나 절차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시간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적절한 공부법을 선택하시되, 다만 강의를 들으신다면 1-2주 내로 빠르게 몰아 듣고 최대한 빨리 문제풀이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4. 동차시험 준비과정

시험명	제30회 법무사시험(2차시험)
응시자명	최이슬
주민등록번호	950225-*****
응시번호	300335

과목명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점수	32.35	23	30	44.25	9	25.5	11.5

평균	43.9
합격선	52.43
합격여부	불합격

1차시험 당시 체력이 크게 떨어져 시험 후 약 한 달간은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낼 정도로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매한 강의도 거의 듣지 못하고 2, 3순환 모의고사를 구하여 이해되는 부분 위주로 1~2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모의고사에서 다루어진 부분이 많이 출제되어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전체적인 준비 부족으로 불합격하였습니다.

저는 동차 준비 당시 강의 비용이 부담되어 타 학원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어느 강의를 듣는지는 상관없으나 일관성 있게 한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이후 기득권 수험에 있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득권 때 이혁준 교수님의 방대한 양의 두문자를 외우면서 동차 때 이혁준 교수님의 강의를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 5. 기득권시험 준비과정

### 가. 수강강의 및 교수님

민법: 이혁준교수님 1~3순환 강의 및 모의고사

형법: 이재영교수님 2~3순환 강의 및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김영환교수님 2~3순환 강의 및 모의고사

민사소송법: 이혁준교수님 예비~3순환 강의 및 모의고사

민사서류작성: 이천교교수님 1~3순환 강의 및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 김기찬교수님 1~3순환 강의 및 모의고사

등기신청서류: 김기찬교수님 1~3순환 강의 및 모의고사

### 나. 점수 및 공부방법

시험명	제3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응시자명	최이슬
주민등록번호	950225-*****
응시번호	700186

과목명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점수	45	18	34.5	40.25	16.25	37	26

평균	54.25
합격선	50
합격여부	합격

개인 사정으로 동차시험 이후 3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밀린 강의를 따라잡기 위해 하루에 10강 이상씩 강의를 들었습니다. 1차 때와 같은 과목씩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부했고, 2순환부터는 매일 모의고사 범위를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모의고사 범위와 별개로 전과목을 각 3회씩 회독했습니다.

- 민법, 민사소송법: 이혁준교수님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와닿지 않았으나 막판으로 갈수록 이혁준교수님의 두문자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법은 기본서를 주로 회독하면서 정리가 필요할 때 암기장을 보았고, 민사소송법은 암기장을 반복 회독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의 경우 시험 100일 전부터는 하루 1시간씩 보아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 부동산등기법의 경우 단순 암기과목이라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할 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김기찬교수님의 목차를 외워두니 그 목차에 맞춰 세부적 내용을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지식으로 채우면 돼서 크게 따로 암기할 것이 많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온 A급 주제를 기본서에 표시해두고 기본서를 반복 회독하였는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다른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와 수월히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법은 시험 50일 전부터 매일 1시간씩 보려고 했습니다.

- 형법: 시간이 너무 부족해 2순환이 시작된 7월 중순에야 비로소 시작했습

니다. 여러 합격수기에서 형법은 사례풀이가 중요하다고 하여 먼저 오제현 변시 사례집과 이재영 교수님의 5행정리 암기장을 일주일간 집중하여 1회독 하였습니다(사례는 선별하여 2/3 정도만 보았습니다). 이후 2순환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했는데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와 전략과목으로 삼았습니다. 형법은 5행정리 암기장만으로도 많이 커버가 되니 먼저 5행정리 암기장을 최대한 외우시고 모의고사로 중요한 판례를 익히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동차시험 당시 모의고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시험 한달 전까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고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결국 3순환 끝자락에서 2, 3순환 모의고사를 암기하기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독서실까지 운전하는 시간을 활용해(왕복 40분) 2·3순환 강의를 반복 청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김영환 교수님의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출제되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민사서류작성: 이천교 교수님의 커리를 따라가면 충분하실듯 합니다. 청구 취지, 청구원인을 많이 틀려 10점 이하를 예상하였으나 16점을 받았습니다. 다들 잘 못 쓰는 건 마찬가지로니 어떻게든 서류를 완성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6. 마치며

2차 시험 당시 긴장한 탓에 핵심을 간결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기본 법리부터 장황하게 서술하는 바람에 시간 배분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민법·민사소송법·형법에서 각 20점 문제를 사실상 날리다시피 하였고 이에 불합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날 민법에서 가족법이 40점으로 출제되면서 멘탈이 크게 흔들렸고, 그 여파로 전략과목으로 준비했던 형법에서도 1문을 거의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시험을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해 둘째날에는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시험장으로 향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준비한 범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성실히 답안을 작성한 결과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차와 2차 시험 모두 결코 수월하게 치르지 못했고 크고 작은 실수도 많았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와중에도 합격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것이 결국 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비록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어 공부 방향을 잡아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황 변호사님과, 힘든 순간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며 나아갈 용기를 주신 성 사무장님을 비롯해 늘 곁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